

본당 소식

2024년 11월 교황님 기도지향 : '자녀를 잃은 모든 이'

아들 딸을 잃고 슬퍼하는 모든 부모가 공동체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평화와 위로를 얻도록 기도합니다.

- ♣ 미사 전,후 화장실에 가실 경우, 성가대쪽 출입문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의실은 전례위원, 그날 복사 외 출입 불가)
 - 미사 후, 성전 내 소등에 다 함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 11월은 위령 성월입니다.
 - 위령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이며,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하는 은총의 시기입니다.
- ♣ 2025/26 밀라노 한인성당 사목위원회
 - 새로이 임기를 시작하는 2025/26 사목위원회 모든 분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 모임/회의
 - 3구역 모임: 11월 23일(토), 17:00, 윤 모니카 자매님 댁.

- ♣ 봉사자
 - 계단, 화장실: 엄기용 안토니오
-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329,18€ • 교무금 150,00€

전례 성가

- 입당 : 48 (주 우리에게 사랑과 자유를)
- 봉헌 : 41 (형제에게 베푸는 것)
- 성체 : 46 (사랑의 송가), 31 (이 크신 모든 은혜)
- 파견 : 436 (주 날개 밑)

전례 봉사

이번 주일(11월 17일)	다음 주일(11월 24일)
1독서: 엄기용 안토니오	1독서: 서인복 리노
2독서: 장세란 세실리아	2독서: 류정연 릿타
복 사: 엄채운 엘리사벳, 정아인 레나	복 사: 강윤이 스텔라, 안테리 소화테레사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 사목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부회장: 엄기용 안토니오 ·총무: 박건욱 레오
-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외교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 1구역장: 유정연 릿타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2024년 11월 17일 (녹) 연중 제33주일(세계 가난한 이의 날)

미사 전례

본기도

주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언제나 모든 선의 근원이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주 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 하나 이 다

-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령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
-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

제1독서 (다니엘 예언서 12,1-3)

1 그때에 네 백성의 보호자 미카엘 대제후 천사가 나서리라.
또한 나라가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재앙의 때가 오리라.
그때에 네 백성은, 책에 쓰인 이들은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2 또 땅 먼지 속에 잠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많은 이가 깨어나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이들은 수치를, 영원한 치욕을 받으리라.
3 그러나 현명한 이들은 창공의 광채처럼
많은 사람을 정의로 이끈 이들은 별처럼 영원무궁히 빛나라.

제2독서 (히브리서 10,11-14.18)

11 모든 사제는 날마다 서서 같은 제물을 거듭 바치며 직무를 수행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12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한 번 제물을 바치시고 나서,
영구히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13 이제 그분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의 발판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14 한 번의 예물로, 거룩해지는 이들을 영구히 완전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18 이러한 것들이 용서된 곳에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바치는 예물이 필요 없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 13,24-32)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4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25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26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27 그때에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28 너희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29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30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
다.
31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32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리의 빛이신 주님, 주님의 백성인 교회를 굽어살피시어, 빛과 어둠이 함께 머무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진리를 밝히고, 구원의 희망을 전하며, 참사랑을 실천하게 하소
서.
2.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의로우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정의와 지혜의 은총을 주시어, 살기 좋은 나라와 국민
의 행복을 위하여 힘쓰며, 공동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게 하소서.
3. 굶주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호자이신 주님, 경제적 어려움으로 굶주리는 이들을 굽어보시어, 이웃과 사회 구
성원들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게 하시며, 모든 이가 더불어 사는 세상 속에서 위로
를 얻게 하소서.
4.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자하신 주님, 저희 지역 모든 이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서로서로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저마다 가진 것을 나누며 기뻐하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이 거룩하신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간절히 비오니
성자께서 당신 자신을 기억하여 거행하라 명하신 이 성사로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